

현장시선



김 형 미
소비자교육중앙회 제주도지부 사무국장

며칠 전 입주가 지나면서 아침저녁으로 소슬바람이 불어온다. 무더위가 곧 끝날 거라고 기대하지만 아직은 팔월 한낮의 햇살이 여전히 뜨겁다. 세계 여러 나라에서 더위와 고온분투하는 뉴스가 연일 방송된다. 이에 기후변화에 대응하여 탄소배출을 줄이려는 노력이 국가뿐만 아니라 개인에게도 요구되고 있다. 필자가 속한 소비자단체에서도 최근 탄소중립 활동을 통한 ‘넷제로(Net-Zero)’ 활동과 재생용품 사용을 권장하는 등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다양한 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소비자들에

중고 스마트폰 피해를 예방하려면

게도 친환경 제품을 확인해 구매하거나, 재활용을 위해 중고제품을 구매하는 소비생활을 권장하고 있다. 소비자상담실에서는 주로 다양한 물품을 구매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상담이 이뤄지지만, 중고물품 구매로 인한 반품 문의나 개인 간의 직거래에서 생겨난 문제를 문의하는 경우도 많다. 특히 최근에는 메모리 가격 상승으로 인해 중고 스마트폰 거래도 활발한데, 이에 대한 피해도 많이 발생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지난해 한국소비자원에서는 중고 스마트폰 피해예방주의보를 내렸다. 최근 3년간(2022년~2025년 9월) 중고 스마트폰 거래 관련 피해구제 신청이 늘어났다. 피해구제 신청은 총 349건으로 피해구제 신청이유를 분석한 결과 ‘품질’이 44.7%(156건), ‘계약’이 41.0%(143건)를 차지했다.

한국소비자원에서는 중고 스마트폰 액정·작동 불량 등 품질 결함이나 제품배송 지연·청약철회 거부 등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제품 구입 전에 몇 가지 사항을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첫째, 사업자 정보 및 제품 후기 등을 참고해 믿을 만한 판매자인지 확인해야 한다. 둘째, 제품의 출시연월·품질·색상 등 상세 정보를 자세히 살펴봐야 한다. 셋째, 가급적 현금보다는 신용카드로 결제하는 것이 좋다. 만일 제품을 받았다면 제품의 하자 유무 및 외관 상태를 꼼꼼하게 확인하는 것이 좋다. 사용하는 과정에서 이상이 생겨 반품할 경우를 대비해 제품을 조심스럽게 다루야 한다. 거래에서 문제가 발생하면 피해자들 대부분 청약을 철회하고 싶어 한다. 하지만 그 방법을 모르거나 귀찮다고 포기해 버리는 경우가 종종 발

생한다.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한 소비자분쟁 해결기준에 의하면 온라인을 통해서 구매한 물품이나 서비스를 구입 후 7일 이내에 청약철회가 가능하다. 또한 기망행위에 의한 판매가 이뤄진 경우에는 대금을 환불받을 수 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청약철회 등의 효과) 제6항의 규정에 따라 소비자가 환불받을 금액만큼 카드사에 청구할 수 있으므로 판매자에게 내용증명을 발송하면 된다. 중고 스마트폰 거래는 단순한 개인 간 중고물품 매매를 넘어 자원 재활용과 알뜰 소비의 일환이다. 따라서 현명한 소비생활을 위해서는 중고거래를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거래로 문제가 발생하면 경찰청 사이버신고시스템이나 1372 소비자상담실에 문의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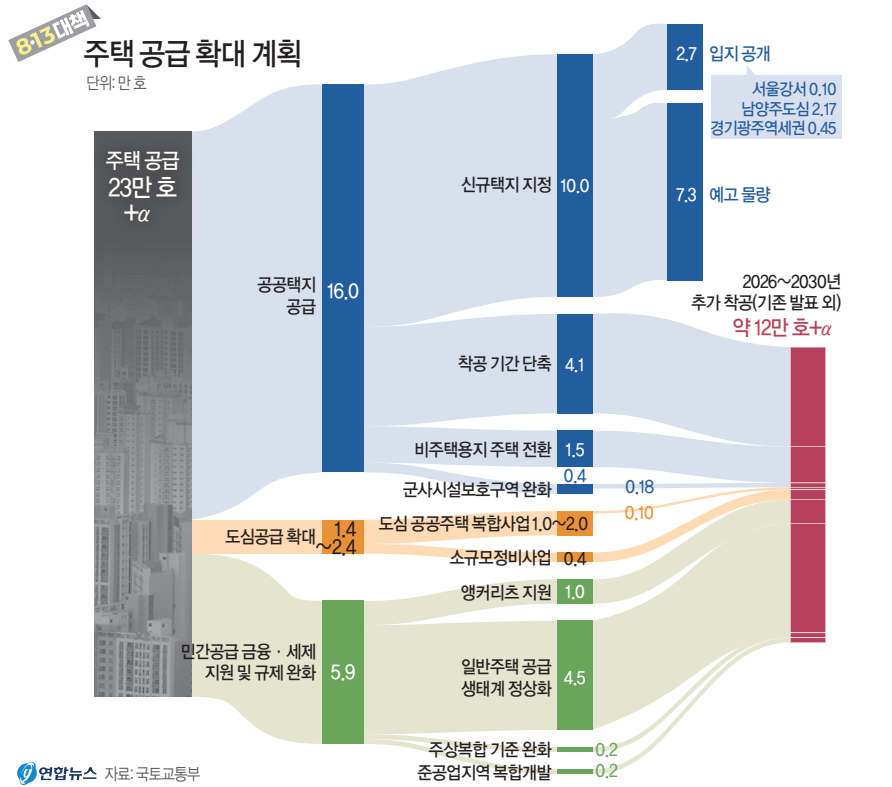
사설

제주 고용지표 양호하지만 ‘외화내빈’

제주지역 고용지표가 개선되고 있다. 하지만 취업자 증가분의 상당수가 단기 취업자와 고령층에 집중되고 업종 간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어 외화내빈이다. 국가데이터처 제주사무소가 발표한 7월 제주도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도내 취업자는 41만5000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1만1000명 증가했다. 고용률은 72.0%로 1년 전보다 1.9%포인트 상승했다. 실업자도 줄었다. 7월 실업자는 4000명 감소하면서 실업률이 1.8%에서 0.9%로 하락했다. 취업자와 고용률, 실업률 등 주요 지표상으로는 양호한 추세지만 양적 지표와 고용의 질 사이에 온도차가 뚜렷하다. 지난달 36시간 이상 취업자는 21만6000명으로 1년 전보다 23.7% 감소했다. 반면 36시간 미만 취업자는 19만 1000명으로 1년 전보다 66.1%

급증했다. 1~17시간 일하는 단기 취업자도 역대 가장 많았다. 전체 취업자 증가가 단시간 일자리에 집중되고 있는 것이다. 종사자 지위별로도 불안정한 고용 흐름을 보이고 있다. 상용근로자는 소폭 증가한 반면 임시근로자와 일용근로자는 큰 폭으로 늘어났다. 또 취업자가 연령층별로 간극을 보이고 있다. 20~40대 취업자는 줄어든 반면에 60~70대 고령층은 큰 폭으로 증가했다. 제주 고용시장이 고령층과 단기 일자리 중심으로 확대되는 양상이다. 일자리가 늘어도 안정적인 일하지 못하고 기본적인 가계운영에 보탬이 되지 못하는 고용구조가 점차 고착화되고 있다. 근로빈곤층의 질 좋은 일자리와 사회적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정부와 지자체 차원의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그래픽 뉴스



 한라일보 제주의 대표 신문	발행인·인쇄인·편집인 김 한 옥 편집국장 고 대 로 ☎ 63185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서사로 154 대표전화 (064)750-2114	
	광고접수 본	사 750-2828 / FAX 752-7448
	서귀포지사	732-5552 / FAX 732-5559
	구독신청·배달	750-2315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기사제보	750-2200 / FAX 752-9790	
1989년 4월 22일 창간 / 등록년월일: 1988. 12. 5 등록번호: 제주, 가00002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한다.		

열린마당

태고의 자연을 걷는 특별한 닻새, 거문오름



현 정 보
제주도 세계유산본부

제주의 오름 가운데 거문오름은 특별하다. 울창한 수림이 검고 읍산한 기운을 띤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으로, 어원학적으로는 ‘신령스러운 산’이라는 의미도 품고 있다. 해발 456m의 거문오름은 조전을 선흘리와 구좌읍 덕천리 일대에 자리하고 있다. 2005년 천연기념물 지정됐으며, 2007년에는 거문오름을 포함한 ‘제주 화산섬과 용암동굴’이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에 등재되며 그 가치를 세계적으로 인정받았다.

올해도 제17회 세계자연유산 거문오름 트레킹 행사가 8월 13일부터 17일까지 5일간 열린다. 용암길은 거문오름에서 분출된 용암이 흘러가며 만들어진 길로, 만장굴과 김녕굴 같은 세계적인 용암동굴을 형성한 ‘용암의 이동 경로’이며, 행사 기간 평소 출입이 제한된 용암길이 특별 개방된다. 태극길과 함께 거문오름의 화산 지형과 울창한 숲을 직접 걸으며 제주의 태곳적 자연을 가까이에서 느낄 수 있다. 특히 올해는 탐방 시작 시간이 한 시간 앞당겨져 오전 8시부터 참여할 수 있다. 무더운 여름, 이른 아침 숲길을 걸으며 자연이 주는 청량함을 만끽하기에 더없이 좋은 기회다. 1년에 단 닻새 동안만 열리는 특별한 길. 올여름에는 거문오름을 천천히 걸으며 제주의 자연이 들려주는 오래된 이야기에 귀 기울여보는 것은 어떨까.

※ ‘오피니언’ 면의 외부필자 기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농업용수 부족 사태, 저수조 확충이 답이다

가뭄이 길어지면서 하천 중심부에 양수펌프가 여럿 등장했다. 물이 많이 남아있는 데다 접근이 용이했기 때문이다. 펌프로 주변 논·밭에 물을 대거나 경운기 등을 이용해 쉴 새 없이 물을 날랐다. 작은 소(沼)들은 바닥을 드러낸 지 오래였다. 전국이 가뭄으로 홍역을 치르고 있다. 경남 밀양·함안·거제는 가뭄 ‘심각’ 단계로 접어들었다. 소규모 저수지들이 바닥을 드러내면서 피해가 확산되고 있다. 부산의 소규모 저수지들도 위태위태한 상황이다. 전남 신안군도 사정은 비슷하다. 농업용수 확보를 위한 긴급 대응에 들어갔다. 제주라고 사정은 다르지 않다. 가뭄이 길어지며 당근 파종이 늦어지고 있다. 파종된 농작물들은 띄약별 아래서 시들어가고 있다. 제주시가 8개 지구의 저수조

증설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지구당 500t 규모의 증설을 통해 비상용수를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더불어 150t 이하의 소규모 저수조를 단계적으로 증설, 농업용수를 안정 공급한다는 구상이다. 이상기후로 폭우·가뭄이 잦아지고 있다. 해를 거듭할수록 가뭄의 강도 또한 거세지고 있다. 하지만 대부분 저수조들은 규모가 작아 필요한 용수를 적기에 공급하기 힘들다. 특히 제주의 경우 도로 사정·운송 수단 등의 이유로 용량이 작아 증설이 시급하다. 중앙 부처·관련 기관 등과의 협의를 통해 증설을 서둘러야 한다. 더불어 기존 저수조의 준설, AI를 활용한 첨단 관리체계 구축 등도 고민할 시점이다. 타들어가는 농작물들을 보며 애통하는 일은 더 이상 없어야 한다.



묘지 후손 찾기

토지 대장에서 주소 없이 이름만 등록되어 있는 미등기 토지에 대하여 상속자(주인)을 찾아드립니다.

후손 찾기 한달 이내 가능합니다.

- 지목에 관계없이 모든 토지 후손 찾아드립니다.
- 등기는 되어 있으나 주소가 바뀌어 소유자를 못찾는 경우
- 소유권 이전 분장시 승소 가능 자료를 찾아드립니다.

묘지전문 제 주 토 박 이

제주누리 미등기 토지 연구소
신소장 ☎ 010-7305-7819

칼라강판 조립식 건물

녹슬고 비새는 곳에

우레아

방수전문건설업

석주개발

☎ 782-3644
010-4690-3636

제주 백도라지 분말

관심과 사랑 주심에 이룬 성과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약백도라지 분말 100% 목성콜

현대백화점, 농협 하나로마트, 경제통상진흥원판매장 판매



대한민국 최고농업기술명인
2009 백도라지 명인

전화 064-783-8987, 010-5755-8987, 성담 010-2691-9316
홈페이지 : <http://www.baekdoraji.com>

주산지
선흘2리 용암동굴계 거문오름 일대지역

한기림JK약백도라지연구소

탁월한 선택!

확실한 광고 효과



한라일보 광고문의
750-2828
서귀포지사
732-5552

가족묘지·문중묘지

허가 대행

별초대행·각종제초작업

묘지관리·묘지보수

방묘·산담·잔디작업

평장·이장·화장·무연고 전문

가족묘지 & 산소에 새, 석새, 잡풀 죽는 약 보유중

장례지도사 **강 봉 호**
010-5254-6661
「진주강씨 제주도종회 이사
사)한국역술인협회 제주지부 이사
관음사 영락원 관리이사」

하나 장 의 사

616-08-85402